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 압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Trend of Early Education and Maternal Parental Beliefs, Stress, and Achievement Pressure*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사 안지영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amans Univ.

Lecturer : Ahn, Jee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trend of early education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of early education and maternal beliefs, stress, and achievement pressure. The subjects were 275 mothers of 4~6 year-old children in Seoul.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 1) Most of the subjects' children(87.6%) were involved in early education, especially in the form of home-visit study and study papers. 2) Parental beliefs (about child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 and maternal achievement pressur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egree of actual involvement and perceived necessity of early education. 3) Parental stress regarding child's temperamen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tarting age of early education. But the other factors of parental stress had no significant relation to the state of early education.

주제어(Key Words): 조기교육(early education), 양육신념(parental beliefs), 양육스트레스 (parental stress), 성취압력(achievement pressure)

Corresponding Author: Jeeyoung Ahn,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amans Univ. 11-1 Daehyun-dong, Seodaemun-gu, 120-750, Korea Tel: 82-2-3277-3068 Fax: 82-2-3277-2852 E-mail: ahnjeeyoung@hanmail.net

* 본 연구는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박사후 연수)에 의해 이루어졌음 (KRF-2001-CA0086).

I. 서론

우리사회에 만연된 학업 위주의 교육 성향은 정규 교육 기관 입학이전의 어린 나이부터 조기교육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빠르게 생후 6개월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알려지며, 유치원 유아의 거의 대부분은 조기교육을 한 가지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박수진, 2001; 이기숙·장영희·장미라·홍용희, 2001), '조기교육 열풍' 현상을 보인다. 한편, 발달의 특성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학습지나 영재, 특기교육 등으로 인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보고되며, 각종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가정 경제에까지 혼란을 주어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자녀 양육에서 학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나타나는 조기 교육의 과열 현상은 '부모의 욕심'이나 '교육열'에 의한다고 해석되며(우남희, 현은자, 이종희, 1992), 그 배경에는 가족 이기주의, 출세지향 주의 같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 및 문화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김영화, 1992). 이렇듯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한 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 지 등의 양육 신념의 내용과 관계가 있으며 실제 자녀 양육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서 특히,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무엇을 옳게 여기며 어떠한 면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양육 신념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현재 조기 교육 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일로 보인다.

우리나라 부모의 의식조사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어린 연령에서부터 자녀의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이며(장은경 외, 1998; 현은강 외, 1997),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0).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조기교육의 현황과 부모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조기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여기며, 일찍 시작할수록 교육에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박수진, 2001;

이기숙 외, 2001; 황혜신, 2002), 자녀 양육이나 조기 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이나 양육 신념을 밝히는 시도가 필요하다.

한편,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자녀양육에서 겪는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 적응 및 자녀와의 관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된다(Lazrus & Folkman, 1984).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업과 관련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외국의 어머니들이 주로 자신의 심리적인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신숙재, 1997).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젊은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의가 매우 높으며, 조기교육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취 압력은 자녀의 학습이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자녀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지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은 경우에 자녀가 조기교육을 받는 가지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홍은자, 2001), 실제 조기교육의 양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조기교육을 시키는 종류들을 알아보는 실태조사가 대부분이다. 최근에 들어 조기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부모의 인식 또는 자녀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엄선희, 1999; 홍은자, 2000; 황혜신, 2002), 조기교육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조기교육의 전반적인 양상과 부모의 인식을 살펴봄, 이러한 현상의 배경요인으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양육 스트레스, 성취압력 변인들과 조기 교육 양상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의 전반적인 실태 및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조기교육의 여부, 시작 시기, 교육의 종류, 비용, 필요성 및 문제 점 등)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압력은 조기교육 실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1. 조기교육의 실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조기/특기교육은 영재교육, 조기재능교육, 특기교육 등의 다양한 용어로 혼동되어 사용되었으며, 주로 학업적 능력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다(우남희 외, 1992). 본 연구에서 조기교육이란, 정규 유아 교육기관의 활동과 어머니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활동을 제외한, 교육비를 따로 지불하는 유치원 특별활동과 사설학원, 가정학습지와 가정 방문교육, 개인 혹은 소집단 과외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최근에 들어 더욱 가세되고있는 조기교육은 유아의 관심이나 잠재 능력의 개발과는 상관없이 학문적 기초기술을 익히는 학습위주, 선행학습의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한 예로, 외국어 교육의 열풍과 맞물려 영아기 이후에 접하는 영어교육 교재나 프로그램들이 이미 보급되고 있는 추세이며, 외국인 강사의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연수 등으로 유아들은 '외국어와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거기다가 2002년 3월부터 영재 교육 진흥법이 실시됨에 따라, 많은 학부모와 사설 학원들이 '영재 교육'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겨레신문, 2001. 5. 2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영재 교육에는 '영재'라는 단어를 부착하여 학업 능력의 조기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어(우남희 외, 1992) 입시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선행 교육의 성격을 가지며, 조기교육의 열풍을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발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조기교육의 과열된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교육부문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학령 전 아동의 교육비가 초등학생 교육비를 넘어섰고 73%의 가구가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담 요인으로는 각종 과외비가 56.0%로 가장 높아 사교육 비용이 가계를 주름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1. 5. 16). 또한, 유아비디오 증후군, 과잉 언어증과 같은 신종 소아 질환은 과도한 조기교육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신의진, 2002). 어머니들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자녀의 학업 성취를 어머니 자신의 성패로 여길 만큼 자녀 교육에 매달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무분별한 조기교육 현상은 부모의 과도한 욕심과 교육 사업의 상업화,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등이 맞물려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지적 발달에 편중된 자녀교육의 풍토를 나타내며, 인성 및 사회 정서, 창의성 등의 균형있는 발달이 중시되는 유아기 발달의 특성과 전인발달을 위한 교육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아기 조기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주로 실태조사와 현황을 밝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사설 학원과 가정 중심의 조기교육 실태(우남희 외, 1992)에서 유치원 아동은 주로 학습지, 피아노, 미술, 수영, 영재 교육, 영어의 순으로 교육을 많이 받으며, 평균 1.98개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교육을 시작한 연령은 대체로 만 4세 전후이나 최연소 연령으로는 1년 5~6개월의 경우도 있었다.

유아용 학습지의 현황 및 인식도에 관한 연구에서(현은강 외, 1997), 유치원 유아의 71.7%가 학습지를 이용하며, 대부분의 어머니는 학습지의 교재와 교구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조작기의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유아기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종이와 연필을 매체로 하는 추상적인 학습 방법인 학습지가 가장 손쉬운 사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부모들은 객관적인 비교 검토를 통해 학습지 사용을 결정하기보다는 주변의 제안이나 관리교사, 판매원의 권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학습지의 관리교사에게 자녀의 지도를 일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현은강 외, 1997). 또한, 조기교육의 가장 바람직한 담당자로서 부모 자신을 꼽으면서도, 직접 자신이 가르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황혜신, 2002),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보다 적극적인 부모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조기 교육에 대한 부모의 동기는 주로 '학업을 위해서'가 가장 높은 순위였으며(우남희 외, 1992), 지능 계발과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은자, 2001; 이기숙 외, 2001).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예능교육이나 특기교육도 자녀의 즐거움이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조기교육을 시키기보다는 훗날 학업에 도움이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들이 인식하는 조기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자녀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는 것과 사교육비의 팽창을 우려하고 있다(황혜신, 2002). 한편, '주위 사람이 모두 시키니까' 조기교육을 시킨다는 의견도 많이 나타나(박수진, 2001; 우남희 외, 1992; 현은강 외, 1997). 부모의 소신이나 양육에 대한 신념대로 자녀를 교육하기보다는 주위의 경향을 따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기교육의 실태 뿐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실제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조기 교육에 대한 내적인 동기나 신념을 밝히는 시도가 필요하다.

2. 어머니의 양육 신념

부모의 양육 행동 뿐 아니라 선행되는 인지적 과정에 관심을 두어온 학자들은 부모의 신념은 부모에게 자녀발달에 대한 이해나 목표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근원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다(Miller, 1988). 부모의 신념에는 발달에 대한 지식, 부모의 역할, 자녀 교육의 목표 및 중시하는 가치,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 등의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신념은 실제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준다. 즉, 부모의 신념에 따라 그가 속한 문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자녀 양육에서 우선 순위와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며, 양육행동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부모의 목표에 비추어 자녀 양육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만 3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관한 연구 결과(장은경 외, 1998), 첫째 자녀인 경우 다른 출생순위에 비해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와 열의가 높았다. 한편, 어머니들은 교사에 비해 자녀의 능력을 우월하게 인식하고 학업에서 높은 기대를 보여 주관적이고 편향된 관점을 나타내었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가 희망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서 더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어(김영화, 1992; 이미숙, 1993)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학업지향적 신념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어머니들은 과도한 경쟁 분위기에서 학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남을 이기는 것을 강조하며(우남희 외, 1992; 현은강 외, 1997),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갖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0). 이에 비해 전체를 고려하거나 공공의식은 희박하며(김지신, 1996), 시민정신이나 공정성, 실용성 등의 측면은 소홀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된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0).

이와 같이 자녀의 학업을 중시하는 부모의 양육 신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는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념과 조기교육 현상을 연관시켜 설명하는 시도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양육신념의 내용 중에 특히 자녀의 발달 목표로서 인성과 성적

중 어떤 측면을 더 중요시하는지, 자녀의 발달에서 성숙과 환경 중에서 어떤 면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조기교육의 효과 및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조기교육 현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주로 자녀 양육과 연관되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으로 지각되는 정서로 정의할 수 있다. 양육 행동과 관련되는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들을 강조한 Abidin(1992)의 '스트레스 모델'(Stress Model)에 의하면,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은 양육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Abidin, 1992; Cmic & Greenberg, 1990).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특성, 유아의 특성, 생활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부모 자신에게 그리고 부모의 양육 행동과 연관되어 자녀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Cmic & Booth, 1991). 예를 들어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인 양육 행동을 하게 되며(Abidin, 1992; Cmic & Acevedo, 1995),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 권위적인 양육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박성연·전춘애·한세영, 1996;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한편,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업과 관련되는 특징도 보여(신숙재, 1997; 이은혜, 1997),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외국의 어머니들이 주로 자신의 심리적인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를 자신의 성공으로 동일시하며, 주위의 학업 위주의 자녀 교육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측면에서도 연구가 시도되어 조기교육이 유아의 스트레스와 연관

있음을 보고한다(엄선희, 1999; 홍은자, 2001). 즉, 학원 및 학습지 이용을 많이 하는 유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아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학원 및 학습지 이용 정도와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나타나는데(엄선희, 1999), 이는 유아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학원·학습지 이용이 어머니에게는 자녀의 학업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뿐 아니라 조기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어머니의 성취압력

학업성취압력은 학습자에게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기대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며 능력을 평가하거나 정의적 보상을 가함으로서 학습자가 지각한 압력으로 정의된다(박수자, 1996).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성적, 석차, 가정 학습 상태, 과제 확인, 시험준비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심리가 자녀에게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된다(박수자, 1996).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의 장래를 학벌위주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두고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압력을 가한다고 할 때, 부모의 성취압력은 양육 태도의 한 속성으로도 볼 수 있으며 자녀에게는 압력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취압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과도한 성취압력은 불안 및 원만치 못한 사회적 관계 등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정애, 1994). 최근에 이루어진 아동 대상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취동기는 높으나 사회적 관계는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류연자, 1995),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게 지각될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홍은자, 2001).

한편,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높다고 해서 초등학교 자녀의 성적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부모의 기대는 자녀에게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비해 아동 스스로의 성취기대가 학업성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김미숙, 1989; 박수자, 1996 재인용).

학원·학습지의 이용과 어머니의 성취압력 그리고 유아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홍은자, 2001)에서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은 유아의 경우는 낮은 집단에 비해 학원 및 학습지를 이용하는 가지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고, 학원 및 학습지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 유아의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실제 자녀의 학원, 학습지 이용과 같은 조기 교육 양상과 연관이 있으며 나아가 자녀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3개 유치원에서 표집한 만 4~6세 자녀를 둔 275명의 어머니들이었다. 연구 대상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46명(53.3%), 여아가 128명(46.4%)이었고 자녀의 평균 연령은 5.25세 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51.5%로 높은 편이며, 가정의 월 평균수입은 32.1%가 250만원~350만원의 분포에 속하고 있어 중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측정 도구

1) 조기교육 실태

조기 교육의 여부, 시작 시기, 종류, 형태, 비용, 조기교육의 필요성 및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등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2)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신념의 측정은 안지영(2001)이 사용한 자녀

발달에 대한 신념 문항과 함께 조기 교육에 대한 신념 문항을 새롭게 작성하여 총 26문항을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및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분석에는 총 22문항을 사용하였다. 제 1요인은 '인성/성적 강조'의 8문항으로, 자녀 양육에서 '인성'을 중시하는 입장은 자녀의 성격이나 친구 관계,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중시함을 나타내며, '성적'을 강조하는 입장은 학교성적, 사회적 성공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제 2요인은 자녀 발달에 대한 '성숙/환경'의 영향에 관한 8문항으로, "아이의 성격은 자신이 타고 난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자녀 발달에서 '성숙'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과 다른 한편은 "아이의 성격은 부모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제 3요인은 '조기교육 관련' 신념으로, 조기 교육의 효과나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의 6개 문항이 포함된다.

본 척도는 7점 척도로서, 중간점수를 중심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자녀 교육의 목표로서 인성을 중시하며, 발달에 미치는 성숙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조기 교육 효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학습의 시기를 중시하는 입장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인성/성적 강조' 요인은 Cronbah's $\alpha=.81$, '성숙/환경' 요인은 Cronbah's $\alpha=.64$, '조기교육 관련' 요인은 Cronbah's $\alpha=.79$ 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의 PSI (Parenting Stress Index, 1990)와 Crnic 등(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 문항과 함께 연구자가 제작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외국의 양육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실정과 다른 면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어려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자녀의 학업 및 조기교육과 관련되는 스트레스 문항들을 개발하여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총 36문항을 구성하여 예비 조사 및 요인 분석의 과정을 통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총 26문항을 사용하였다. 제 1요인은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내용의 10문항이며, 제 2요인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명명된 7개의

<표 1> 연구 변인들의 문항수, 신뢰도, 평균 및 점수범위

변 인	문항수	신뢰도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양육 신념				
인성/ 성격강조	8	.81	1~7	2.04 (.87)
성숙/ 환경주의	8	.64		3.26 (.96)
조기교육 관련	6	.79		2.48 (1.17)
양육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	10	.80	1~5	2.33 (.58)
자녀와의 관계	7	.67		2.50 (.47)
학습관련	9	.68		2.66 (.53)
성취압력	20	.76	1~5	3.26 (.58)

문항이다. 제 3요인 '학습관련 스트레스'에는 9개 문항이 포함되며 자녀의 학습 지도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지각됨을 의미하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h's $\alpha = .67 \sim .80$ 에 해당된다.

4) 어머니의 성취압력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홍은자(2001)가 사용한 '어머니의 성취압력 검사'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어머니의 성취압력, 학습에 대한 관심도가 포함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유아기에 맞도록 내용을 수정한 후, 문항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5점 척도의 2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문항의 신뢰도는 Cronbah's $\alpha = .76$ 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해 예비 조사과정을 거쳐, 척도의 문항을 확정된 후 자료 수집을 위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3개 유치원에서 만 4~6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5일 후에 회수하였는데 미완성이거나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총 275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측정 도구는 요인 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결정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에서 각 변인간 또는 각 하위 요인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로, 집단간의 차이 검증에는 chi-square, t 검증 및 일원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문제 1. 조기교육의 전반적인 실태 및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1) 최초 이용종류, 시기

자녀가 최초로 시작한 조기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기에 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처음 받은 조기교육은 주로 한글과 관계되는 종류로 응답자의 54.6%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교사의 가정방문 형태였다. 또한, 처음 조기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평균 41개월로 나타났는데, 최소 3개월~12개월까지 11.3%, 13~24개월은 12.5%, 25~36개월은 18.4%, 37~48개월은 26.2%, 49~60개월은 29.3%, 61개월 이상은 2.3%로 나타나 주로 만 4~5세의 시기에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2〉 조기교육을 받는 가지 수 및 지출 월 비용

조기교육 가지 수	빈도(%)	월 비용	빈도(%)
① 0개	34(12.4)	① 10만원 이하	100(41.5)
② 1~2개	102(37.1)	② 11~20만원	82(34.0)
③ 3~4개	93(33.8)	③ 21~30만원	39(16.2)
④ 5개 이상	46(16.7)	④ 31~40만원	11(4.6)
⑤ 41만원 이상	9(3.7)		
합계	275(100)	합계	241(100)

(2) 조기교육 가지 수

현재 자녀가 받고 있는 조기교육 가지 수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의 87.6%가 현재 유치원 정규교육 과정 이외에 최소 1가지에서 최대 8가지까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평균은 2.64개로 나타났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1~2개는 37.1%로 가장 많은 비율이고 다음은 3~4개(33.8%)이며 5개 이상의 조기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16.7%에 이른다. 한편, 조기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12.4%로 나타났다.

(3) 비용

자녀의 조기교육 비용으로 대상 유아에 대해 가 구당 월 평균 136,12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고 950,000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10만원 이하의 경우가 41.5%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다음은 11~20만원(34.0%), 21~30만원(16.2%)의 순이다(표 2 참조).

(4) 형태 및 종류

조기교육을 유치원 특별활동, 학원, 학습지 및 가정방문지도, 개인 및 소집단 과외의 유형으로 구분

하여 어떤 형태로 실시되는지를 살펴보았다(중복 응답 가능).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형은 학습지 및 가정방문 교육으로 전체의 71.2%가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원(35.5%), 유치원의 특별활동(31.6%)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형인 학습지·가정방문 지도에서 1가지를 교육받는 경우는 30.2%로 가장 많고 다음은 2가지(26.5%), 3가지(11.5%)의 순이며, 구체적인 종류는 수학, 국어, 영어, 한글, 종합 학습지의 순서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학원에서는 피아노, 미술, 태권도의 순서로 많이 이용하였다.

(5) 조기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의미, 문제점

어머니들이 조기교육의 의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아이의 취미와 적성을 발견하여 키워주는 것"(51.5%)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다음은 '잠재능력의 계발'(26.1%), "인지능력을 키워 학업에 도움을 주는 것"(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앞당겨 일찍 가르치는 것"의 항목은 1.1%만이 응답했다(표 3 참조).

한편, 현재 조기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유치원 교육으로 충분하다"(31.1%)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제적 부담'(27.4%)과 "조기교육의 부작용을 염려해서"(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현재 조기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일찍부터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33.9%)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따라하는 분위기와 과도한 경쟁"(29.9%) "조기교육의 부작용을 염려해서"(18.6%) "사교육비 부담"(15%) "가족,

〈표 3〉 조기교육의 의미, 시키지 않는 이유, 문제점

조기교육의 의미	빈도(%)	현재 조기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	빈도(%)	조기교육의 문제점	빈도(%)
① 일찍 가르치는 것	3(1.1)	① 유치원 정규교육으로 충분	42(31.1)	① 아이에게 stress가 되는 것	93(33.9)
② 잠재능력 계발	71(26.1)	② 경제적인 부담으로	37(27.4)	②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41(15.0)
③ 취미, 적성 발견	140(51.5)	③ 자녀가 흥미를 갖지 않음	21(15.6)	③ 무조건 따라하는 분위기, 과도한 경쟁	82(29.9)
④ 인지능력, 학업에 도움	55(20.2)	④ 조기교육의 부작용 염려	28(20.7)	④ 조기 교육의 부작용	51(18.6)
⑤ 기타	3(1.1)	⑤ 기타	7(5.2)	⑤ 가족, 또래와의 시간 감소	7(2.6)
합 계	272(100)	합 계	135(100)	합 계	274(100)

또래와의 시간 감소”(2.6%)의 순으로 나타났다.

(6) 한글, 영어, 예능·특기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필요성, 이유, 연령

한글, 영어, 예능 및 특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조기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보았다(표 4 참조). 현재 유아기 자녀에게 조기교육이 필요한 정도는 한글, 영어, 예능 및 특기교육의 분야 모두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한글: 56.8%, 영어: 47.4%, 예능 및 특기: 63.9%).

한글 조기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은 “다른 교육의 기초가 되기 때문”(66.5%)으로 나타나며, 다음은 “지능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12.6%),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11.4%)의 순서이다. 한편, 현재 자녀에게 한글 조기교육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2%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대부분 “나이가 되면 스스로 흥미를 느낄 것임으로”라고 응답하였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한글을 읽고 쓰는 것으로 기대하는 연령을 질문한 결과, 어머니들은 만 5세의 응답이 39.4%로 가장 많고, 만 6세(38.3%), 만 4세(10.6%)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 조기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어려서 시작해야 쉽게 배우기 때문”(55.0%)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16.4%), “아이가 원하기 때문”(14.3%)도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영어 조기교육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2.4%이며 “한글을 익힌 후에 영어교육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어머니

들이 생각하는 영어 조기교육의 적절한 시기는 만 6세가 21.9%로 가장 많고 만 7세(20.4%), 만 5세(19.7%)의 순서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예능·특기 조기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유아의 소질과 특기를 일찍 발견, 계발하기 위해”(68.8%), “유아가 원해서”(18.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8.3%)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예능·특기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3.7%에 불과한데 “자녀의 스트레스가 될까봐 우려하여서”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예능, 특기 조기교육이 적절한 시기로는 만 6세(33.6%), 만 5세(28.5%), 만 7세(18.6%)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압력은 조기교육 실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성취압력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운데 학습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취업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r = -0.17, p < .0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전업주부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자녀의 학습에 대해 유의하게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M = 2.76$ vs. $2.53, t = 2.55, p < .05$).

한편,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성취압력 변인들은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서

<표 4> 조기교육이 필요한 이유

한글		영어		예능·특기	
이유	빈도(%)	이유	빈도(%)	이유	빈도(%)
① 초등학교 준비 위해	29(11.4)	① 초등학교 준비 위해	39(16.4)	① 초등학교 준비 위해	22(8.4)
② 지능발달에 도움되도록	32(12.6)	② 어려서 시작해야 쉽게 배우	131(55.0)	② 다른 유아도 하기 때문에	1(0.4)
③ 다른 유아도 하기 때문	1(0.4)	③ 다른 유아도 하기 때문에	3(1.3)	③ 유아소질의 발견, 계발 위해	181(68.8)
④ 유아가 원해서	16(6.3)	④ 유아소질의 발견, 계발 위해	21(8.8)	④ 유아가 원해서	48(18.3)
⑤ 다른 교육의 기초가 되므로	169(66.5)	⑤ 유아가 원해서	34(14.3)	⑤ 기타	11(4.3)
⑥ 기타	7(2.8)	⑥ 기타	10(4.2)		
합계	272(100)	합계	272(100)	합계	274(100)

<표 5> 전체 관련 변인들의 상관 관계

(n=275)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성취압력	조기교육양상								
	인성/ 성적	성숙/ 환경	조기 교육	자녀 기질	자녀 관계	학습 관련	성취 압력	최초 시기	가지 수	총 비용	한글 필요성	한글 나이	영어 필요성	영어 나이	예능 특기 필요성	예능 특기 나이
자녀연령	-.22	-.12	.05	-.09	-.04	.07	-.08	.37***	.25***	.22***	.18	.07	.06	.01	.04	.00
출생순위 ¹⁾	.02	.07	-.02	-.01	.05	-.07	.10	.29***	-.12*	-.02	.01	-.00	-.09	.01	-.02	-.03
어머니교육	.10	-.08	-.03	.00	-.11	-.06	-.00	-.06	.10	.11	-.19**	-.02	.10	-.03	.04	-.00
어머니취업 ²⁾	-.10	.01	.07	.08	.08	-.17**	-.07	.14*	.05	.05	-.02	-.05	.08	-.02	.10	-.04
수입	.05	-.07	-.03	-.03	.01	.02	-.04	-.01	.21**	.24***	-.08	-.03	.08	-.02	.10	-.07
인성/성적신념	-	.29***	.19**	.02	-.06	.08	.33***	.00	.05	-.01	.03	.05	-.01	.02	-.03	.03
성숙/환경신념		-	.09	.16***	.06	.07	.33***	-.04	.14*	.10	.20**	.07	.15*	.07	.11	-.00
조기교육관련신념			-	.13*	.21***	.12*	.25***	-.09	.04	-.01	.15*	-.15*	.21**	-.05	.11	.02
자녀기질스트레스				-	.37***	.32***	.15*	-.13*	.04	.01	.04	.05	-.01	.01	.05	.08
자녀관계스트레스					-	.27***	.03	-.10	.01	-.02	-.03	.05	-.05	.01	-.08	.09
학습관련스트레스						-	.22***	-.09	.02	-.01	.11	.07	.06	.07	.02	.04
성취압력							-	-.03	.13*	.09	.16**	-.05	.21***	-.02	.13*	-.04
최초시기								-	.02	.01	-.01	.09	-.04	.04	.10	-.07
가지수									-	.71***	.01	.02	.11	.00	.15*	.00
총비용										-	.02	.02	.13*	-.04	.13*	-.06
한글필요성											-	-.15*	.29***	-.01	.22***	-.04
한글나이 ³⁾												-	-.26***	.09	-.19**	.04
영어필요성													-	-.26***	.36***	-.07
영어나이 ⁴⁾														-	-.01	.02
예능특기필요성															-	-.12*

1) 외동이=0, 첫째=1, 둘째이하=2

2) 전업주부=0, 취업모=1

3) 한글나이 : 자녀가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나이

4) 영어나이, 예능특기나이 : 자녀에게 영어, 예능특기교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나이

* p<.05 ** p<.01 *** p<.001

로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교육 관련 신념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3 요인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 $r=.13, p<.05$,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r=.21, p<.001$, 학습관련 스트레스: $r=.12, p<.05$). 즉, 조기교육을 받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하며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신념을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이나 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 학습과 연관된 스트레스 모두 높은 경향이였다.

또한, 어머니의 성취압력도 어머니의 양육 신념(인성/성적: $r=.33, p<.001$, 성숙/환경: $r=.33, p<.001$, 조기교육: $r=.25, p<.001$)과 양육 스트레스(자녀 기

질: $r=.15, p<.05$, 학습: $r=.22, p<.001$)의 영역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은 경우 자녀 양육에서 성적을 강조하며 발달에서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고 조기교육이 유익하다는 신념을 가지며,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함께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 스트레스, 성취 압력 변인들과 조기교육 양상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처음으로 조기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어머니의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r=-.13, p<.05$),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겪을수록 자녀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한 연령이 더 낮았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하위 33% 집단으로 구분하여 최초로 조기교육을 받은 연령의 평균을 비교하면, <표 6>과 같이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은 상위 33%의 집단은 평균 37.4개월, 하위33% 집단은 평균 44.4개월로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자녀를 조기교육에 일찍 접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자녀가 받고 있는 조기교육의 총 가지 수와는 어머니의 성숙/환경주의 신념($r=.14, p<.05$)과 성취압력($r=.13, p<.05$)변인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이 높고 자녀의 발달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신념을 가진 경우 자녀가 더 많은 수의 조기교육을 받는 경향이다. 어머니의 성숙/환경주의 신념의 상위 33%와 하위 33%로 구분하여 자녀들이 받는 조기교육의 총 가지 수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하위 즉, 자녀의 발달에 '성숙'의 영향력이 크다는 신념의 어머니들에 비해, 상위에 해

당하는 '환경'의 영향력이 크다는 어머니들이 더 많은 수의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M=2.28$ vs. $2.84, t=-2.14, p<.05$).

또한, 조기교육을 받는 총 가지 수와 연관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자녀의 연령($r=.25, p<.001$)과 수입($r=.21, p<.01$)이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입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수의 조기교육을 받는다. 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과 추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만 4세(평균 1.65개)에 비해 만 5, 6세 자녀는 2~3개에 이르는 등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가정의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200만원 이하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가지 수의 교육을 받는다(표 6 참조).

조기교육에 드는 총비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인으로는 자녀의 연령($r=.22, p<.001$)과 수입($r=.24, p<.001$)이 증가하는 경우, 영어 조기교육의 필요성($r=.13, p<.05$)과 예능 특기교육($r=.13, p<.05$)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경우에 조기교육에 지출하는 총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

<표 6> 조기교육 최초 시작시기와 학습 가지 수에 대한 관련변인 분석

자녀의 기질 관련 스트레스	조기교육 최초 시기 M (S.D.)	t	
하위 33% (n=79)	44.42 (14.61)	2.78**	
상위 33% (n=86)	37.43 (17.44)		
성숙/ 환경주의 신념	조기교육 가지 수 M (S.D.)	t	
하위 33% (n=92)	2.28 (1.61)	-2.14*	
상위 33% (n=85)	2.84 (1.89)		
자녀의 연령	조기교육 가지 수 M (S.D.)	F	Duncan
만 4세 (n=46)	1.65 (1.74)	10.01***	A
만 5세 (n=112)	2.68 (1.67)		B
만 6세 (n=116)	3.01 (1.82)		B
월평균수입	조기교육 가지 수 M (S.D.)	F	Duncan
200만원 이하 (n=48)	2.08 (1.66)	3.85*	A
200-300만원 (n=82)	2.46 (1.72)		A B
300-400만원 (n=72)	2.93 (1.76)		B
400만원 이상 (n=67)	3.07 (1.89)		B

* $p<.05$ ** $p<.01$ *** $p<.001$

〈표 7〉 어머니의 교육 수준에 따른 조기교육의 의미

조기교육 의미	어머니의 교육수준		계 빈도(%)
	고졸, 전문대졸 빈도(%)	대졸 이상 빈도(%)	
일찍 가르치는 잠재능력 개발	3(2.5)	53(34.6)	3(1.1)
취미, 적성의 발견	18(15.1)	80(52.3)	71(26.1)
인지능력, 학업에 도움	60(50.4)	18(11.8)	140(51.5)
기타	37(31.1)	2(1.3)	55(20.2)
계 빈도(%)	119(100)	153(100)	272(100)

$\chi^2 = 26.17^{***}$ $df = 4$

*** p<.001

음과 같다.

조기교육의 의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 내용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면, 〈표 7〉과 같이 어느 집단이나 조기교육의 의미로서 “자녀의 취미와 적성을 발견하여 키워준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 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여 어머니가 전문대졸 이하(고졸 포함)인 경우에는 조기교육이 “인지능력과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이 많았고,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잠재능력을 키워준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 = 26.17, df = 4,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가 인식하는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연관되는 변인은 다음과 같다.

한글과 영어 모두 공통되게 성숙/환경 신념(한글: $r = .20, p < .01$ 영어: $r = .15, p < .05$), 조기교육관련 신념(한글: $r = .15, p < .05$ 영어: $r = .21, p < .01$), 성취압력(한글: $r = .16, p < .01$ 영어: $r = .21, p < .001$)들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환경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신념을 갖고 조기교육이 유익하며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있다는 신념을 가진 경우, 또한 자녀의 학업에 대해 성취압력이 강한 경우에 한글과 영어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한글조기교육의 필요성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r = -.19, p < .01$),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낮을 수록 현

재 자녀의 한글 교육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기대하는 연령과 연관되는 변인은 조기교육관련 신념($r = -.15, p < .05$), 한글에 대한 필요성($r = -.15, p < .05$), 영어 필요성($r = -.26, p < .001$), 예능·특기 필요성($r = -.19, p < .0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조기교육이 효과가 있으며 어린 나이에 교육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신념을 가진 경우, 그리고 한글, 영어, 예능 및 특기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에 자녀가 한글을 읽고 쓰는 것으로 기대하는 연령이 낮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기교육의 전반적인 양상은 연구 대상인 유치원 유아의 87.6%가 유치원 정규교육 이외의 조기교육을 받고 있으며, 평균 2.64개에 이르렀다. 가구 당 대상 유아에 대해 조기교육 비용으로 월 평균 136,12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조기교육의 형태는 학습지·가정방문이며, 수학, 국어, 영어 과목을 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최근 몇 개의 실태조사에서도 대상 유아의 86%(이기숙 외, 2001), 또는

95%(박수진, 2001)가 조기교육을 받고 있으며 유아 1인당 참여하는 조기/특기 교육의 수는 평균 1.6개(황혜신, 2002) 또는 4.23개(박수진, 20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및 대상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유아가 유치원의 정규 교육 이외에 특별활동, 사설 학원, 가정 방문 및 학습지 형태의 조기교육을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학습지·가정방문 형태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71.5%) 결과는 선행연구들(우남희 외, 1993; 이기숙 외, 2001)에서도 나타나, 우리나라 유아들은 학습과 연관되는 기초능력을 가정 방문교사나 학습지를 통해 배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지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과 낮은 가격, 광고 등에 의해 많이 이용되지만, 정답 찾거나 어휘습득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며, 지필을 사용하는 형식, 개인차나 흥미가 고려되지 않은 수동적인 교수 방법 등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맞지 않는다(현온강 외, 1997). 따라서, 대부분의 유아가 이용한다고 할 수 있는 학습지 및 가정 방문교육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조기교육의 이용 가지 수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가정의 월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박수진, 2001; 이기숙 외, 2001)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교육을 더 많이 받는 점은 초등학교 입학준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머니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성적이 중요해진다고 인식하여, 조기교육을 통해 한글은 기본적으로 익히고 영어와 예능·특기교육까지도 초등학교 '성적'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우남희 외, 1992; 이기숙 외, 2001). 이는 우리 사회에서 조기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녀의 취미나 소질을 계발하는 목적보다는 발달을 앞당기거나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학습을 준비하는 의미로 시행됨은 나타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기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조기교육의 의미로 “자

녀의 취미와 적성을 발견하여 키워주는 것”, “잠재능력의 개발”, “인지능력을 키워 학업에 도움을 주는 것”의 순서로 응답하였으며, 현재 조기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일찍부터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따라하는 분위기와 과도한 경쟁”, “조기교육의 부작용”, “사교육비 부담”을 염려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과 사교육비를 염려하며 조기교육의 열풍 분위기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고있기 때문에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어(박수진, 2001; 우남희 외, 1992; 이기숙 외, 2001; 황혜신, 2002) 어머니들의 인식과 실제 행동에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은 자녀의 발달 목표로서 대체로 성적보다는 인성을 중시하는 경향이거나, 이러한 신념의 내용은 조기교육의 실태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결과에서도 신념과 행동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같이 신념과 실제행동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어머니들이 질문지 방식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신념과 행동간의 차이는 일상 생활의 다른 측면에서도 발견되는데, 주로 이기심이나 집단의 압력, 자아 강도와 같은 기타 복잡한 요인에 의해 자신의 의식이나 신념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Damon, 1977; Krebs, 1967). 즉, 어머니들도 인성 개발, 또래 관계, 전인발달을 중시해야 하며 적성에 따라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유아기 때부터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과외교육을 한다는 응답은(이기숙 외, 2001; 황혜신, 2002), 부모가 바람직한 자녀양육이 무엇인지 알려도 경쟁이 치열하고 성적과 입시를 중시하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신념이전에, 그가 속한 사회 문화의 소산임을 고려해야 한다. 신념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부모의 자녀 양육 목표와 가치에도 영향을 주는 점과(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 모든 사회의 양육 행동은 자녀가 그 사회의 지향하는 가치, 태도와 기술을 익혀 사회에 적응력을 기르는 것(LeVine, 1988 : Okagaki

& Divecha, 1993에서 재인용)이라 측면에서, 과열된 조기교육 현상은 부모 개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 전반적인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의 '교육열'은 개인적 속성이기보다 사회적 현상이며 사회 전반적이고 과잉된 학력 우선주의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오옥환, 1999), 이에 대해 사회적, 제도적으로 다각적인 검토와 해결 방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자녀의 학원과 학습지 이용에 대한 학부모의 동기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부모들은 표면적으로는 "학습에 도움이 되고, 지능 개발을 위해서"라고 응답하는데 비해, 부모의 응답에서 언어적 기술 내용을 심층 분석하면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또는 "남에게 기죽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김병욱, 1993). 따라서, 부모의 교육적인 기대와 같은 신념, 의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어머니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동에도 차이가 있으며, 신념의 내용에도 표면적으로 나타난 내용과 심층적인 동기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째, 본 연구에서 성숙/환경주의 신념과 조기교육 관련 신념은 조기교육의 필요성 및 이용 가지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환경주의 신념을 가진 경우 자녀가 받는 조기교육의 가지 수는 더 많으며, 환경주의 신념과 조기교육이 유익하며 효과가 있다는 신념을 가진 경우 자녀의 한글 및 영어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5가지 이상의 조기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가 전체의 16.7%에 이르며 연구에 따라서는 최고 12가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이기숙 외, 2001), 그 배경에는 어머니들이 조기교육에 대해 그 효과를 인정하며, 발달에서 환경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신념과 연관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들은 조기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효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어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은 현저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영어 조기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는 "어릴 때 시작해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선행연구에서도 무조건 일찍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영어교육을 강요하여(우남희, 1995) 3개월 유아에게 영어교육을 하는 경우도 보고된다(이기숙 외, 2001).

이같이 어머니의 양육 신념이 조기교육의 양상과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그 신념의 내용에 따라 유아의 발달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일찍 시작하거나 많은 종류의 조기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너무나 일찍 또는 과도한 학습우주의 조기교육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 따른 유아발달에서의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신의진, 2002), 조기교육이 실제로 유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기교육의 효과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조기교육의 효과 및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는 부모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조기교육의 필요성 및 이용 가지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은 경우에 자녀가 받는 조기교육의 가지 수는 더 많으며, 어머니는 예능·특기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은 경우에 학원·학습지의 이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홍은자, 2001)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로 나타나는 부모의 높은 성취압력은 조기교육의 실제 양상과 연관됨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중류층 가정의 경우에 자녀가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며(김영화, 1992), 가정 환경이 좋고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은 경우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류연자, 1995). 이는 높은 성취압력은 학부모의 대리만족으로서 자녀 교육에 치중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김병욱, 1993).

또한, 어머니의 성취압력에 의한 학습지와 학원수강이 유아의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홍은자, 2001),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유아의 많은

조기교육 이용과 연관이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과도한 부모의 압력에 의해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조기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다 주의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최초로 조기교육을 실시한 시기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예상외로 나머지 양육 스트레스는 조기교육 양상과 유의한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지의 이용이나 조기교육은 아동에게는 스트레스로 인식되는데 비해(엄선희, 1999), 어머니에게는 조기교육에 투자한 만큼 성적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다른 아이들에게 뒤지지는 않겠다는 심리로 인해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조기교육의 열풍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여기기 보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부모들은 사교육비 지출을 부담스럽게 여기면서도 사교육비 지출을 통한 학업성취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홍은자, 2001), 사교육비 지출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리라는 '투입-산출'에 대한 기대 신념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맹목적인 지원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한다(김병옥, 1993).

이상의 측면은 어머니들이 교육비 투자를 '입시 준비' 또는 '자녀 교육'으로 동일시하며, 사교육비 지출을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에게 요즘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을 개방적 질문형식으로 알아본 결과, 취학을 앞두고 한글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주위의 교육열로 인한 갈등/교육제도, 사교육비, 학원에 대한 고민/사립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결정(이사, 추첨...)/자녀 교육에 대해 부모의 판단이 어려움 등의 응답도 다수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겪는 자녀의 학업, 조기교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포함하는 스트레스의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기교육의 양상과 함께 이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 신념, 성취압력과 같은 변인은 어느 정도 실제 조기교육 양상과 연관을 나타내었다. 이로 보아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기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의 측면 이외에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인식 및 자녀 발달에 대한 신념이나 성취 압력 등의 변인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공하였는데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한편, 양육 신념의 내용으로 원칙적인 면이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들이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나라 어머니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되는 양육 스트레스의 특성을 밝히는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중류층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보다 다양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한 비교가 필요하다. 또한, 심층 면접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적인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신념, 스트레스 등을 밝히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기교육이 실제로 유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 참고문헌

- 권이종(1988). 한국 부모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 태도 조사연구. 서울: 계몽아동연 구소.
- 김병옥(1993). 유치원·국민학생의 사교육비와 관련된 학교의 생활의 문화 기술적 연구-학원수강과 학습지 구독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 연구*, 3(1), 179-215.
- 김영화(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4), 173-197.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진(1995).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어머니들의 신념 비교 연구. *유아교육연구*, 15(2),

- 5-22.
- 노정애(1994).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문적 자아개념 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연자(1995).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수자(1996).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습소의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의진(2002) 조기교육과 발달 병리적 문제, 한국 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2년도 한국 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선희(1999).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옥환(1999). 한국 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고유 이론모형의 탐색. 교육학연구, 37, 41-28.
-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1992). 사설학원과 가정 중심의 조기교육 실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 49-64.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상을 위한 유아교육의 혁신. 서울: 교육인적 자원부
- 이미숙(1993). 가족의 가치관 및 구조적 특성이 교육열이 미치는 영향. 가족학 논집, 5, 19-42.
- 이완정, 현은강(1999). 영아·걸음마기 자녀 양육 신념의 세대간 비교 연구: 상호 의존성과 독립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4), 97-110.
- 이은혜(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5(3), 31-46.
- 장은경, 박은혜, 김희진(1998). 만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36(4), 137-146.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0).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제1권. 서울: 행동과학 연구소.
- 현은강, 공인숙, 김영주, 이민정(1997). 유아 학습지의 현황 및 인식도. 아동학회지, 18(2), 67-93.
- 홍은자(2000). 어머니의 성취 압력, 학원, 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혜신(2002).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한국 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2년도 한국 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Abidin, R. P.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 Crnic, K. A., & Acevedo, M. (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pp.277-29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amon, W. (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NY: Jossey-Bass.
- Krebs, R. L. (1967). Some relations moral judgement, attention, and resistance to temptation,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6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proc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02-113.
- McGillicuddy-De Lisi, A. V., & Sigel, I. E. (1995). Parental belief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4*, (pp.333-358).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Okagaki, L., & Divecha, D. J. (1993). Development of parental belief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35-6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3년 6월 30일 접수, 2003년 10월 9일 채택)